

아랍비료산업은 무엇보다도 이윤을 많이 내고 있으며 생존력이 있어서 갖출 수 있는 최상의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점점 커져가는 농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건전한 환경친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지역 산업의 힘의 토대는 풍부한 석유와 가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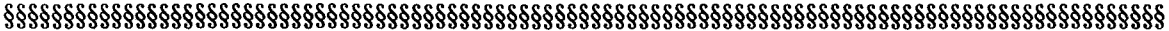
아랍국가들은 세계 석유와 가스 자원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석유 및 가스 생산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어느때나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말고도 아랍의 비료생산업체들은 경쟁적인 가격으로 다른 지역의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이점은 이 지역 정부들이 현대적인 공장을 개발하도록 장려를 하고 훌륭한 기반시설을 공급함으로써 더욱 보장되었다.

아랍전지역을 통하여 비료회사들은 수출을 위한 비료를 생산한 것 말고도 이지역 농업부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Al Sayed는 말한다. 이들이 취한 조치들은 조언과 지원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노력들은 높은 농작물 수확과 비료사용의 확산으로 이끌었다.

아랍국가들은 모든 기본적인 비료요소들을 대표하고 있다. 질소부문에서 아랍비료 생산업체들은 현재 질소질비료 848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질소질 생산능력 13,554만톤의 6.2%에 상당한 것이다. AFA는 세계 생산능력이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14,780만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랍국가들은 이러한 증가분에서 많은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2002년까지는 총 생산능력이 1/3이 증가하여 1,067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추가 생산량의 대부분은 수출용이 될 것인데 AFA는 중등으로부터 나가는 질소질비료 수출량은 1998년의 230만톤에서 2002년에는 39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시아국가들은 이러한 수출물량 중 대부분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만 중남미와 호주도 중등 그래놀 요소의 중요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다.

중등과 북아프리카는 또한 주요 인산 생산지역이다. 이 지역의 인광석 생산량은 1999년의 약 1,599만톤에서 2002년까지는 1,895만톤으로 약 18%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기간동안의 세계 생산량은 인광석 15,999만톤에서 16,870만톤으로 약 5.6%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산 생산능력 또한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생산능력은 이 기간동안 인산 3,738만톤에서 4,201만톤으로 늘어나 12%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아랍국가들의 몫은 277만톤에서 329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거의 19%가 증가되는 것이다.

중동의 가리 생산업자들은 질산칼륨과 같은 특수부문으로 제품 영역을 넓히려고 투자를 하고 있으며 사해로부터 추출한 다른 광물을 대량 판매하기 위한 개발을 하고 있다.

중동의 유탄 수출량은 1990년대 중반으로부터 꾸준히 증가되었다. 주요 수출국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부다비 및 쿠웨이트이며 카타르도 이 중의 하나인데 카타르는 생산량을 약 160,000톤 증가시켰다. 수출되는 제품 중 많은 양이 인산질비료 부문이다.

대 아세아 판매량은 아랍지역 전체 수출물량인 약 350만-400만톤의 절반 미만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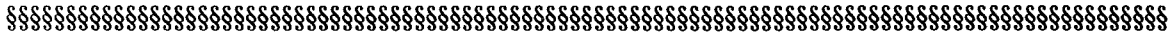
o 전략적 의미

아랍국가들은 down stream 화학시설에 투자함으로써 번영의 기반으로 삼는 원유 및 가스 수출의존을 줄이고 있으며 비료공업은 전 지역을 통하여 상당한 전략적 중요성의 역할을 떠맡고 있다. 아랍국가들은 세계시장으로서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그들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으며 또 이들 국가들은 아세아 및 유럽의 합작사업 동반자로서 그들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할 기회를 찾고 있다.

Al Sayed씨는 그러한 투자가 석유화학 제품에 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down stream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down stream 아랍비료 공업은 20년전에 거의 제로상태에서 출발하였다. Saudi Arabian Basic Industries Co(SABIC)와 같은 회사들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선도자의 자리를 굳혔고 한편으로는 다른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도 국제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미 아랍비료 회사들은 발전을 위한 다음 단계를 찾고 있다. 그들은 가장 낮은 환경상의 영향을 갖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현대식 공장을 운영한다.



Al Sayed씨가 말하는 것처럼 “ 현재의 경쟁상태에서는 제품을 파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초점은 공급자/고객이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다. ”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제품과 서비스의 질은 ISO 9000체계와 같은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많은 량의 재고 누적을 피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정확한 시간에 전달을 하고 생산원가를 줄여야 한다.
- 고객의 제품 시비 개발에 수출자가 발 맞추어 나가야 한다.

Al Sayed씨는 아랍국가들의 비료공급자들에게 농업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서로 협력하여 비료사용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 강령과 지침을 개발하는데 공동으로 힘 쓸 것을 촉구하고 있다.

Al Sayed씨는 지역의 비료생산능력의 장차 확충은 전적으로 천연개스와 기타 풍부한 원료의 구매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되고 시장의 잠재성에 바탕을 두어서 과잉 생산상태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l Sayed씨는 다음 분야에서 아랍국가들이 대내외적으로 노력을 더해 신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 서비스 및 기술
- 환경보호
- 생산, 소비 및 교역의 단기, 중기 및 장기 개발의 예보에 관한 의견 및 정보교환
- 원료 개발 및 투자 보호

그러한 과정을 따름으로서 “ 아랍지역의 비료공업은 올바른 길로 들어 설 것이며 훨씬 높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 라고 Al Sayed씨는 결론지었다. 확실히 아세아국가들이 일찍이 있었던 경제적 침체로부터 회복됨에 따라 중동 및 북미의 비료 공업은 모든면에서 새로운 천년을 향하여 계속 발전할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